

the decision of the 1938 Assembly resigned and withdrew from Korean Presbyterian membership. Acting on the recommendations of many of the boards, the majority of missionaries were evacuated from the field by the fall-winter of 1940.¹⁰²⁾ During these same years, pressures on the conservative Korean church leaders also intensified. The then two Korean professors in the Presbyterian Seminary, Drs. Hyung Nong Park, the most educated voice for conservative thought among the Koreans, and Kung Hyuk Nam fled to hiding places in Manchuria, and other resisting pastors who escaped prison left the country.

In this process liberal churchmen with Japanese colonial policy spread their influence, and the conservatives lost their leadership in the church and were removed effectively from the church courts. The result of this loss of conservative leadership, national and foreign, was swift and simple. As Prof. Yang Sun Kim rightly observed, "the conservatives were shut out and the control of the church, which has been in their hands, went into the hands of those who had secured their higher educational training in Japan, and these liberals brought in liberal theology".¹⁰³⁾

In this way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experienced a great change from conservative to liberal control of the church.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theological change greatly influenced the life of the church after liberation.

The church renewal movement in the South Kyong Sang province after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was the reaction to these two factors, that is conforming to the shrine worship and liberal theology.

102. H. Conn, *op. cit.*, p. 169.

103. Yang Sun Kim, I, p. 192.

C. P. E. Bach의 Organ음악연구

손경순

목 차

- I. 서 론
- II. 생 애
- III. 고전주의 오르간 음악
- IV. C.P.E. Bach의 오르간 음악
 - A. Sonata
 - B. Prelude, Fugue, Fantasie and Fugue
- V. 결 론

I. 서 론

음악역사에서 1750년까지는 J. S. Bach와 F. Handel을 중심으로 하는 Baroque의 절정으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 시대가 끝나기도 전인 1730년경부터 새로운 음악조류가 나타나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¹⁾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변화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종교의 예속에서 벗어나 개인의 태고난 개성을 조화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최대의 가치로 삼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음악에 있어서의 변화는 Baroque의 복잡한 대위법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 누구나 쉽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음악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을 주도한 대표적 작곡자 중 하나가 Carl Philipp Emanuel Bach (1714~1788)이다.

1) Will Apel, *Masters of the Keyboard Music*, Harvard Uni Press, 1965, p. 178.

C. P. E. Bach는 J. S. Bach의 둘째 아들로서 전고전주의(pre-classic-era)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이며 감정적 양식(Empfindsamer Stil)의 대표자로서 그의 음악은 Baroque의 복잡한 음악형식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내면적 감정을 중요시하며 보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음악창조를 목표로 정돈되고 균형잡힌 음악을 작곡하고 있다.

그 당시 이러한 음악의 변화 속에서 2가지의 새로운 양식이 생겼는데 Galant 양식과 Empfindsamer Stil이다. Galant는 귀족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의 음악을 지칭하는 것으로 화려한 장식음들을 사용하였으며 극히 기교적이다. 반면 Empfindsamer Stil은 C. P. E. Bach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그는 그의 저서에서 “음악의 주된 목적은 감정을 움직이고 가슴을 감동시키는 것²⁾이라고 말했듯이 지나친 장식을 피하며 잘 조화된 단순한 화성을 갖는 음악이다.

또한 그는 Sonata 형식을 확립하였으며 극히 다양하고 풍부한 감정의 곡을 작곡하여 Haydn과 L. V. Beethoven의 Sonata에 큰 영향을 주어서 고전주의로 화려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비록 그가 전고전주의의 대표자로 알려졌지만 Baroque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아버지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음악적 훈련을 받지 않았고 Hamburg와 Berlin을 중심으로 활동했을 뿐 거의 여행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방문하는 유럽 각국의 많은 위대한 음악인들의 다양한 음악을 접하면서 그의 음악적 폭을 넓힐 수 있었다.³⁾ 아버지 J. S. Bach는 그에게 대위법만을 강요해서 가르치지 않았으며 화성 자체의 순수성을 중요시 할 뿐 아니라 모든 성부의 흐름과 진행의 자연스러움을 가르쳤다.⁴⁾ 이러한 모든 영향은 후에 그의 음악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의 생애 마지막 해인 1786년에 쓴 “Bach와 Handel의 비교”에서 그는 그의 아버지의 음악을 찬양하고 있다.⁵⁾ 그는 말년에 그의 아버지의 위대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Baroque 음악의 기초 위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실제적이고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의 오르간 작품을 중심으로 Baroque의 유산과 그 당시 새로운 음악이라 불리우는 고전적인 면의 결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2) Charles Burney, *A General History of Music*, p. 955.

3) *Ibid.*, p. 955.

4) Albert Schweitzer, *J. S. Bach*, Dover, v. 1, 1966, p. 218.

5) (ed) Sam Morgenstern Bonanza, *Composers on Music*, pp. 62-3.

이 편지에서 “그의 아버지가 작곡한 5~6성부의 Fugue, 건반과 Pedal을 위한 trio 등을 Handel은 결코 작곡한 일이 없다”라고 씀으로 그의 아버지의 음악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II. 생애

C. P. E. Bach는 1717년 대위법의 최고봉인 J. S. Bach와 Maria Barbara(1684-1720)의 두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 Bach는 원손잡이 아들이 음악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1724년 St. Thomas 학교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1731년 Leipzig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였다. 그후 1734년 Frankfurt 대학으로 옮겨서 법률 공부를 계속했다. 그의 음악적 훈련은 아버지에게서 오르간과 Cembalo를 배웠을 뿐이지만 어려서부터 음악에 관심을 가져서 많은 음악적 활동을 하며 전반 음악을 비롯한 Cantata 등 그 자신 나름의 작곡을 시작하게 된다.

1738년까지 법률 공부를 끝낸 그는 1740년 Berlin의 Fredrich II 세의 궁정의 Cembalo 연주자로 임명되어 28년 동안 재직함으로 그의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의 주된 임무는 왕이 주도하는 궁전 실내 음악 회에 출연하는 일이었다. 왕은 Flute을 직접 연주하며 음악적 관심이 많았으나 자신의 좁은 음악적 소견을 지나치게 강조하였으므로 Bach는 왕궁에서의 음악 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그의 작품은 별로 연주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의 음악을 이해했던 사람은 왕의 동생인 Anna Amalia였다. Bach는 그녀를 위해서 많은 음악을 작곡하게 되었는데 그의 오르간 작품은 모두 그녀를 위해 쓰여졌다.

1767년 Hamburg에서 음악지도자(director)였던 Georg Philipp Telemann(1681-1767)이 죽자 C. P. E. Bach는 그 자리를 얻게 되었다. 그는 Hamburg의 주요 5개 교회의 음악지도를 담당하며 교회를 위한 절기 음악, 장례, 축하, 취임 cantata 등 수 많은 곡을 작곡하였다.

그는 교회 뿐 아니라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게 되며 음악 회를 열어 보다 폭넓은 활동을 펼치며 많은 음악가들과 교류하게 된다.

또한 시인, 작가, 교수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를 가지며 독일 문학 운동인 질풍노도⁶⁾ (Sturm und Drang)에 영향을 받아서 그의 기악 작품에 그 분위기를 도입하고 있다.

Hamburg에서 21년 활약하며 명성을 펼친 그는 이곳에서 폐병으로 1788년 생애를 마친다.

III. 고전주의 오르간 음악

J. S. Bach를 최고봉으로 융성한 발전을 했던 Baroque 오르간 음악은 18세기 초에 현저한

6) 1770년-90년 독일에서 일어난 문학 운동으로 괴테, 실러 등을 중심으로 장식이 많은 로코코에 반대하여 고전주의로 들어간 운동이다. 클링거의 동명의 희곡에 바탕을 두고 있다.

쇠퇴를 나타낸다.⁷⁾ 그것은 음악형식에 깊은 관련된 것으로 대위법의 표현을 위해서는 오르간이 가장 좋은 악기였지만 그 당시 추구되었던 감정적 양식의 표현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은 악기였기 때문이다.⁸⁾ 감정적인 대조를 쉽고도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악기로서 피아노는 이때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르간 음악은 복잡한 대위법의 기교를 단순화시키거나 고전주의의 음악어법을 함께 사용하는 등 혼합된 형식으로 나타난다.

교회음악에 있어서 오르간 음악은 현저한 변화를 보이는데 17세기 북독일 오르간 음악의 가장 중요한 형식인 신교chorale⁹⁾에 기초한 작품들을 여러 작곡가들에 의해 작곡되고 있으나 이런 시대와 같이 대위법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homophonic¹⁰⁾한 진행을 보인다.

J. S. Bach의 아들인 Johann Ernst Bach(1722-1771)와 C. P. E. Bach의 작품에서도 이와같은 경향은 뚜렷해지는데 C. P. E. Bach의 Sonata 등은 감정적인 양식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할 만하다. 또한 J. S. Bach의 제자인 Johann Fredrich Doles(1715-1797)은 그의 작품에서 더욱 새로운 양식의 galant 표현이 도입된다. 그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작품을 작곡하고 있다.¹¹⁾

반면 구교가 지배적인 남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오르간은 쇠퇴되어가며 교회예배에서 조차 오르간의 역할을 다른 관현악 악기들이 대신하게 된다.¹²⁾ 그러나 많은 작곡가들이 전통적인 대위법과 새로운 선율과 화성의 고전적 요소를 결합하여 작곡하였다.

작곡가로 대표적인 사람은 Johann Ernst Eberlin(1702-1762), Johann Georg Albrechtsberger(1736-1809) 등이 있다. 또한 몇몇 작곡가들은 string과 오르간을 위한 곡들을 작곡하고 있는데 F. J. Haydn(1732-1809)은 오르간을 위한 교회Sonata등만을 작곡하고 있으며 다분히 고전주의 형식의 곡을 썼다.¹³⁾

IV. C. P. E. Bach의 오르간 음악

그의 오르간 작품은 6개의 Sonata, Fantasie and Fugue c-minor, 2곡의 Fugue d-minor, E^b-Major, Adagio per il Organo 등이 있다.

7) F. E. Kirby, A Short History of Keyboard Music, p. 150.

8) M. Kratzenstein, Survey of Organ Literature and Editions, The Iowa State Uni Press, 1980, p. 46.

9) 독일신교 교회의 찬송가를 지칭한다.

10) 어떤 한 성부가 주선율을 담당하고 다른 성부는 그것을 화성적으로 반주하는 형태.

11) F. E. Kirby, A Short History of Keyboard Music, p. 153.

12) M. Kratzenstein, Survey of Organ Literature and Editions, p. 46.

13) Ibid., p. 46.

대부분의 오르간 작품이 그의 초기인 Berlin시대(1754-1759)에 작곡되었는데 Fredrich대왕의 여동생 Amalie 공주를 위해서 쓰여졌다. 2개의 건반과 Pedal을 위해 작곡되었는데 그 당시 Bach가 사용한 오르간은 작은 크기의 Chamber 오르간이었다. 그는 그 오르간의 규모에 맞는 오르간 곡을 작곡하였다. 그의 작품의 이해를 위해 그 당시의 오르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Hauptwerk (C-f'''')

Bordun 16'
Principal 8'
Rohrfloete 8'
Viola da Gamba 8'
Octave 4'
Quinta 3'
Octava 2'
Mixtur 4 fach 11/3'
Trompete 8'

Waldflote 2'

Siffloete 2'
Vow humana 8'

Pedal (C-d')

Subbass 16'
Octava 8'
Octava 4'
Posaune 16'
Trompees 8'

Oberwerk (C-f''')

fk 2; Gedackt 8'
Quintaton 8'
Principal 4'
Gedackt 4'
Nassat 3'

Nebenregister

Manualkoppel
Pedalkoppel
Tremulant (Oberwerk)
3 Sperrvent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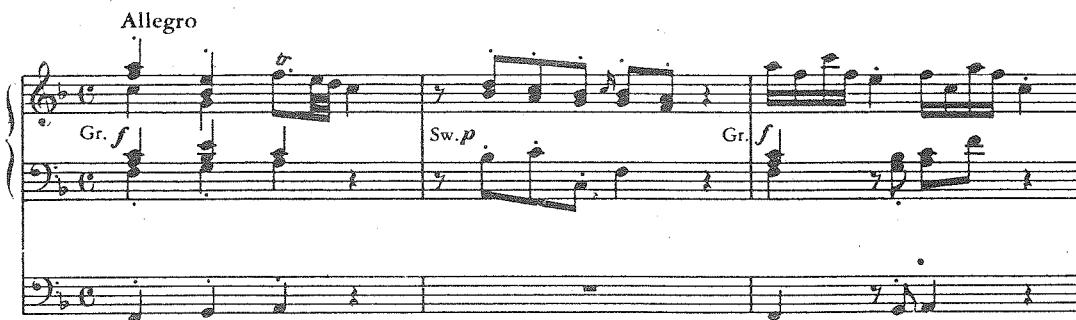
그러면 그의 작품을 Sonata와 대위법적 작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A. Son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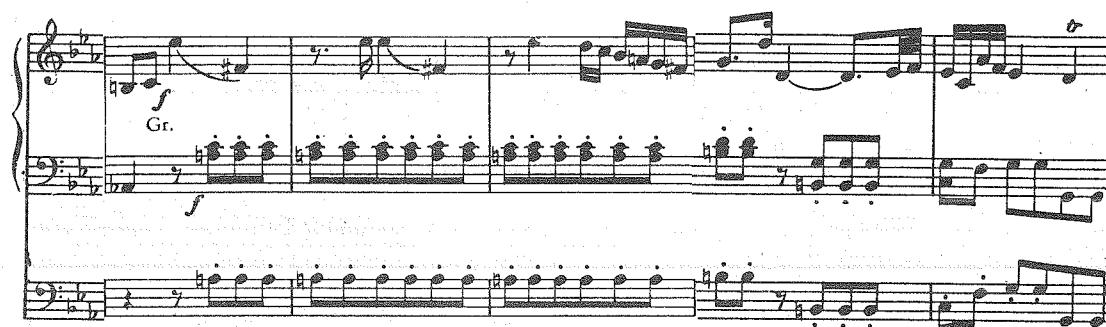
그의 오르간 Sonata는 대부분 빠르고-느리고-빠른 3악장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과다한 장식을 피한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갑작스런 휴지와 전조, 다양한 리듬사용, 강약의 대조, Unison사용, 반음계적 전조들이 특징이다. 그의 Empfindsamer Stil의 특징은 특히 2악장에 잘 나타나 있다.

C. P. E. Bach가 사용했던 오르간은 2개의 건반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Sonata는 각 건반간의 f-p대조의 대화형식으로 곡 전체를 이끌어 가며 <악보1> 윗 성부가 선율을 노래하고 원손은 가볍게 반쳐주는 역할을 하거나 때로는 Pedal Part도 가볍고 작게 화성을 채워주기도 한다. <악보2>

<악보1> Sonata IV 1악장, 1-3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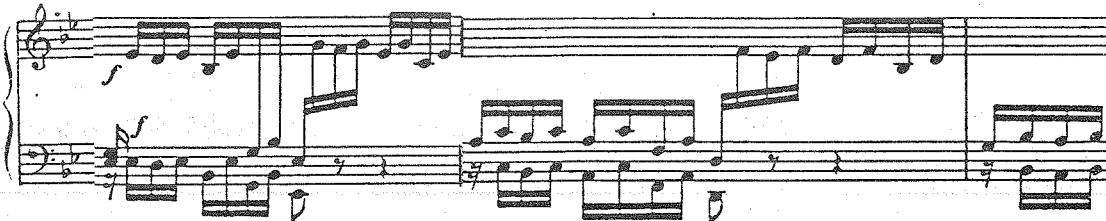


<악보2> Sonata V 1악장, 83-87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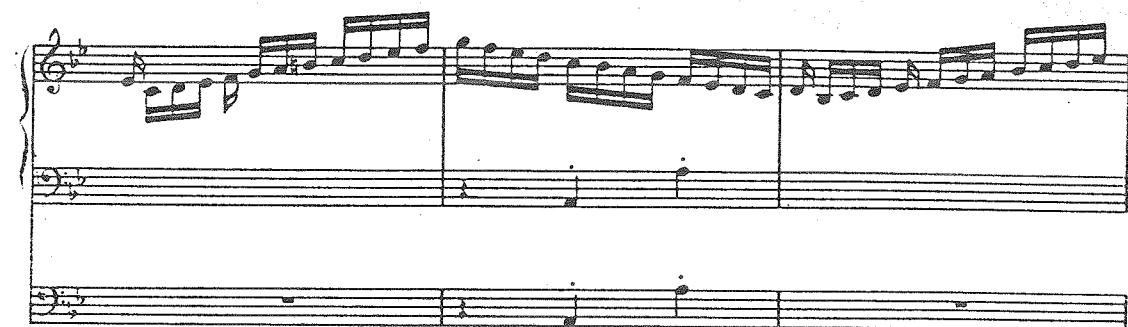


또한 unison 진행이 흔히 쓰이며<악보3> 음계적 진행도 자주 나타난다.<악보4>

<악보3> Sonata III 1악장, 21-23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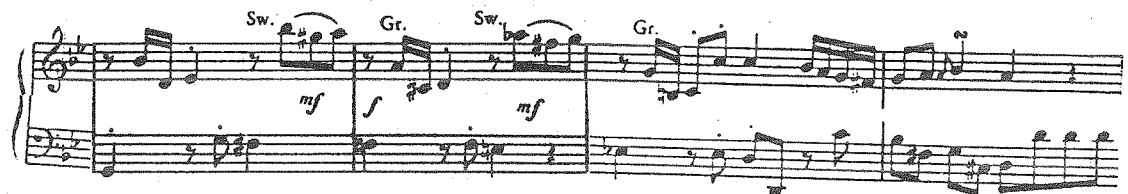


<악보4> Sonata II 3악장, 104-6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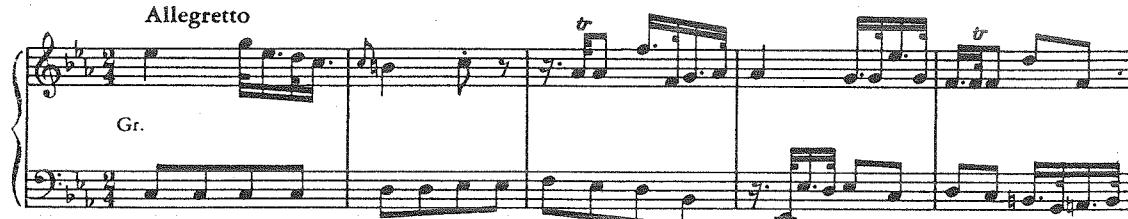
선율은 반음계적 진행, 모난 선율, 선율에 의한 한숨, 심한도약, 옥타브, 비정상적인 선율의 겹임 등이 흔히 쓰인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악보5>

<악보5> Sonata II 1악장, 7-11마디



리듬은 강한 붐점리듬<악보6>, 당김음 리듬등 자유로운 리듬형태를 가진다.

<악보6> Sonata V 3악장, 1-5마디



화성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하지만 점점 갑작스런 화성변화와 전조, 준비없는 화성변화가 심하다. <악보7>

<악보7> Sonata IV 3악장, 19-26마디



그의 Sonata에는 고전주의적 요소가 강하지만 모방기법이 사용되는 등 대위법적인 수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악보8>

<악보8> Sonata III 3악장, 1-5마디



장식음의 지나친 사용은 피하고 악절의 내용을 동화시키는 정도로 한정되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의 Sonata는 리듬, 선율 등 모든 부문에 극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동시에 자연스럽고 단순한 음악을 만들어 가고 있다.

B. Prelude, Fugue, Fantasie and Fugue

이 형식은 Baroque시대에 가장 발전했던 악곡형식으로서 그 자신도 Fugue는 대위법적으로 이전시대의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화성이거나 구조가 좀 더 단순화 되었다.

그러나 Fantasie와 Prelude는 전통적인 법칙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스럽고 즉흥적인 성격을 가지며 Empfindsamer Stil의 경향을 볼 수 있다. 자유스런 형식이란 분절법에 의한 주기적 구조를 가지며 주제가 선율을 유도하고 반주는 수직화성적으로 정교하게 맞쳐준다. 그리고 아래의 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화성적 진행의 악구가 교대된다. <악보9>

<악보9> Fantasie and Fugue c-minor, 1-11마디

Allegretto ($\text{d} = 84$)

또한 즉흥적인 성격의 Recitative가 삽입되기도 하는데 Barline을 철저하게 지켜서 규칙적으로 화성이 바뀌는 것에서 벗어나 마디를 무시하며 더 자유스럽고 즉흥적인 요소가 강하다. <악보10>

<악보10> Fantasie and Fugue c-minor, 11마디

[quasi Recitativo]

V.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P.E.Bach는 작곡가, 교육자로 후세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 전고전주의의 대가로서 그의 음악은 Baroque의 음악을 바탕으로 좀 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오르간 음악의 특징은 다양한 리듬, 강한 강약의 대조, 갑작스런 전조, 즉흥적인 성격의 Recitaitve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그는 Sonata 형식을 발전시켜 음악역사적 견지에서 Haydn과 Beethoven의 고전Sonata의 발전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준 작곡가로 큰 업적을 남기고 있다. 또한 J.S.Bach와 C.P.E.Bach의 서로 다른 음악에도 불구하고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두 작곡가 모두 자신들의 깊은 감정과 상상력을 표현했다는 면에서 기인한 것이다. C.P.E.Bach는 항상 새롭고 자연스런 음악을 향한 그의 업적으로 전고전주의의 대가로 일컬어진다.

참고문헌

1. Apel, Willi, Master of the Keyboard Music, Harvard Uni Press, 1965.
2. Burney, Charles, A General History of Music.
3. F.E. kirby, A Short History of Keyboard Music, The Free Press, 1966.
4. Graut, Donald Jay, A History of Western Music, Norton & Co. Inc. 1973.
5. Marilou Kratzenstein, Survey of Organ Literature and Editions, Iowa State Uni Press, 1980.
6. Schweitzer, Albert, J.S. Bach, Dover, V.1, 1966.

高神大學
論文集第18輯
1990. pp. 253~260

기독교 대학과 교수들의 과제*

Anthony Diekema**

우리가 성원으로 있는 사회와 우리가 종사하는 고등교육사회는 기독교대학과 기독대학인들이 제공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될 진리의 제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특히 우리 교육제도에서 기대되는 성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펼쳐지고 있는 변화와 변동으로 말미암은 현기증에 시달리고 있다. 비록 가치와 교육에 관련된 문제가 교육이라고 하는 기업 그 자체 만큼이나 오랜 세월에 걸쳐 제기되어 왔는데도 이 가치관과 교육의 양자 관계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특별한 긴박감 속에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고래로 철학자들과 학자들은 가치관과 교육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로 유착되어 있음을 인식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탈가치적 교육을 상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대나 현대에 있어서 저명한 교사나 철학자로서 도덕적으로 중립을 지킨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할 자가 있는가).

오늘의 공교육은 가치(관)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위치에 전락되어 왔다. 일부 관대한 비평가들은 공교육에는 중핵가치구조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오, 그들은 이를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일컬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주장은 전적으로 허구인 것이다. 미국의 전 대법원장 와렌 베거는 기본적인 시민적 윤리규범에 필요한 가치관조차도 전수치 못하는 공교육의 무능력에 대해 통렬히 규탄함으로써 미국교육에 대한 많은 비판적 관측자들의 비난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많은 경우 교사들이나 교육행정가들 중에는 가치관에 대한 교육보다는 사실 위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가 더욱 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의 공교육에는 일종의 규범적 공백, 즉 의도적인 불가지론이 팽배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학교나 교사들이 그 어떠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그들이 무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무입장의 표현은 그 자체가 일종의 가치관의 표현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어떻든 그들은 탈 가치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표방된 가치관은 허무주의적이고, 자기도피적이며, 무정부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탈 가치적인 교육환경은 사실인즉 그 자체에 대한 규범적 성격규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중요한 것으로 믿는 바이다. 왜냐하면 합리주

*이글은 지난 3월 27일~28일 본 대학의 자매교인 미국 칼빈대학의 학장이 양교의 친선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래방했을 때 본 대학에서 행한 강연의 원고를 번역(역자: 김용섭 교수)한 것이다.

**칼빈대학 학장, 철학 박사